

3

선으로 표현되는 세계

- ☐ 드로잉의 의미를 이해하고 느낌을 살려 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다양한 드로잉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원
영기

선으로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선은 머릿속과 마음속에 있는 나의 생각과 느낌을 종이 위에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내 준다. 또한 선에는 그리는 사람의 느낌과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기도 한다. 끼적끼적 낙서부터 공간 속에 그리는 드로잉까지 선으로 표현되는 세계를 탐험해 보자.



- 1 콜더(Calder, Alexander/미국/1898~1976)
알소(황동 선/40.64×60.96cm/1929년경) 철사를 비틀고 구부려 무게감이 없는 입체 작품을 만들었다.
- 2 윤현섭(한국/1981~) 사람들(플라스틱/가면 크기/2014~2015) 검은색 플라스틱 막대를 구부려 마치 3차원의 공간에 드로잉하듯이 표현하였다.
- 3 포어맨(Foreman, Jonathan Paul/1992~) 무제(부산 다대포 해수욕장/2015) 기하학적인 선과 패턴의 모래 드로잉 작품이다.



작업 장면



낙서에서 시작하기

수업 시간 책이나 공책 빈 공간에 뭔가를 꺼적하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부담 없이 자유롭게 하는 낙서는 선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거나 생각을 발전시키고 작품을 구상하는 바탕이 된다.



1 김중환(학생 작품) 무늬를 만드는 나무(종이에 펜/12×12cm/2016) Zen(선)과 Tangle(복잡하게 얽힌 선)의 합성어로 마음 가는 대로 선을 그리고 무늬를 넣어 완성하는 그림이다.



2 이종섭(한국/1916~1956) 낙현의 가족(은자에 유채, 88cm/31×15.4cm/1950년대) 담뱃갑 속에 든 알은 온종일이 숨곳이나 나무 편으로 눌러 움직임을 그린 후 짙은 색 물감으로 매워 선이 도드라지게 하여 그린 그림이다.

3 해링(Haring, Keith/미국/1958~1990) 뉴욕 호스턴 스트리트 맨 보워리 거리 벽화(1982) 단순하고 굵은 선과 강렬한 원색, 밝고 율동감 있는 형상들을 건물의 벽, 길거리, 지하철 등에 그려서 거리의 낙서 또한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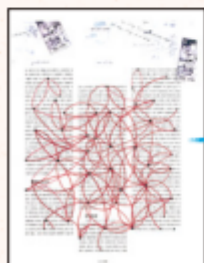


활동 1

낙서하듯 선으로 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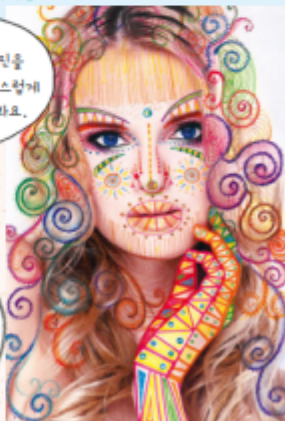
준비물 집지책, 자, 볼펜이나 사인펜, 색연필, 수정액, 마커 등

- 어린 시절 낙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집지책에 낙서해 보자. 그래피티 예술가들처럼 문자나 비판의 메시지를 담아도 좋고 그냥 자유롭게 아슬 아슬 했던 것처럼 낙서를 해도 좋다.



잡지에서 인물 사진을 선택해 최대한 장난스럽게 수정하고 왜곡해 봐요.

같은 글자나 문장 부호를 찾아 점을 찍은 후 점들을 직선, 곡선, 물결선 혹은 지그재그 등으로 자유롭게 연결하고, 선이 지나가면서 생긴 면들에 여러 가지 색을 채워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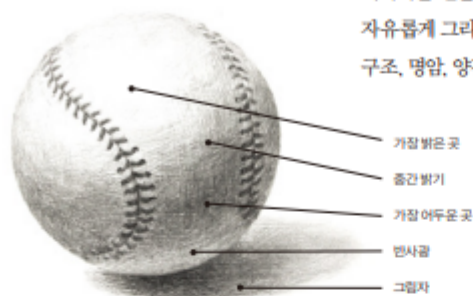
김지현 외 2인(학생 작품) 집지책에 낙서하기(2016)

평가

- 선이 만드는 직선, 곡선 등의 모양과 느낌에 집중하여 그렸는가?
- 낙서가 독립적인 미술 작품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는가?

선과 드로잉

선은 모든 조형 활동의 기본이 된다. 선은 형태의 윤곽과 움직임을 나타내고 겹쳐서 그으면 명암을 나타내 대상에 입체감과 양감을 부여한다. 형태나 이미지를 선을 이용해 그리는 것을 드로잉이라고 한다. 대상의 특징을 잡아서 자유롭게 그리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거나 대상을 자세히 관찰하여 형태와 구조, 명암, 양감, 질감 등을 세밀하게 표현한다.



구의 명암 표현



반 고흐(Van Gogh, Vincent/네덜란드/1853~1890) **오リーブ 포도밭**(종이에 연필, 수채, 유채/44×45cm/1890) 고흐 특유의 물결치는 듯한 선이 잘 살아 있는 드로잉에 기법적 재색을 하였다.



앨리스(Ali, Martha/미국/1930~) **내 개의 붉은 배**(종이에 색연필/56.5×76.2cm/1991) 아주 미세한 선을 그려 개별 선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명암을 표현하였다. 강한 하이라이트와 부드러운 그림자가 대비되면서 고유하면서도 생기가 넘친다.



신은엽(한국/1970~) **침낭의 기억**(바스테인리스 거울에 유채, 마커, 메니큐어/100×100cm/2005)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마커로 윤곽 드로잉한 후 손과 발을 찍었다.



엘레(Schiele, Egon/오스트리아/1890~1918) **아이의 초상**(종이에 강철 크레용/38.1×28.3cm/1918) 엘레가 죽던 해 어린 조카를 드로잉한 작품으로 미완성으로 남아 있다.

활동 2

윤곽 드로잉

준비를 참고 자료, 도화지, 드로잉 재료, 채색 도구 등

대상의 윤곽을 따라 선을 사용하는 윤곽(컨투어) 드로잉은 대상의 형태와 세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인 표현 훈련의 하나이다. 그리는 동안 도화지는 보지 않고 대상에만 집중해서 보면 평소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 1 대상의 윤곽을 자세히 관찰하고 드로잉을 시작한다. 도화지는 보지 않는다.
- 2 대상의 윤곽을 따라가는 눈의 움직임과 펜의 움직임이 일치하도록 한다.
- 3 선은 끊지 않고 계속 이어서 그린다. 대상의 특징을 놓치지 않고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 4 형태 안쪽에서 새로 선을 그어야 할 때는 종이를 잠깐 보고 해당 지점을 찾아도 좋다. 단, 이때 펜은 움직이지 않는다.
- 5 색연필 두 자루를 쥐고 드로잉하거나 드로잉을 마치고 선과 색을 덧입혀 표현하면 더 재미있는 표현을 할 수 있다.



허윤(학생 작품) 기린(종이에 사인펜, 수채/27.2×19.7cm/2016)
윤곽 드로잉을 한 후 배경에 무늬를 그렸다.

→ 박서운 외 9인(학생 작품)
친구 얼굴(종이에 사인펜/각 29.7×21cm/2016)
서로 다른 색의 사인펜 두 자루를 한꺼번에 쥐고 친구 얼굴을 윤곽 드로잉하였다.



평가

- 윤곽 드로잉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는 대상의 특징을 발견하였는가?
- 대상에 골라진 집중하여 특징을 살려 표현하였는가?

활동 3

제스처 드로잉

준비를 도화지, 드로잉 재료, 채색 도구

대상의 움직임을 포착해 빠르게 그리는 제스처 드로잉을 해 보자. 모델이 된 친구의 자세와 움직임을 살피고 동작이 바뀌기 전에 빠르게 선을 연결해 표현해 보자. 같은 대상을 그리더라도 재료를 달리하면 느낌이 달라진다.

- 1 연필, 크레용, 목탄, 사인펜 등 다양한 재료를 선택한다.
- 2 대상 자세에 집중해 대상의 움직임을 내 몸처럼 느껴 본다.
- 3 대상을 관찰하여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세를 포착한다.
- 4 전체적인 자세를 재빠르게 그린 후 팔, 다리, 엉덩이, 무릎을 그린다.



김윤세(학생 작품)
말방 친구
(종이에 사인펜/
27.2×19.7cm/2016)



윤현아(학생 작품) 생각하는 친구
(종이에 연필/27.2×19.7cm/2016)



남동현(학생 작품) 매지박 주자(종이에 연필/각 27.2×19.7cm/2016) 바를을 이어받아 달리는 순간을 빠르게 포착하여 그렸다. 각각 30초, 2분, 5분 동안 완성한 작품이다.

평가

- 제스처 드로잉의 개념을 이해하고 동작의 특징을 포착하였는가?
- 주어진 시간 동안 대상의 특징을 간결한 선으로 나타내었는가?